



동방 경제 포럼 소식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 수산업 클러스터의 투자초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투자의 규모는 208억 루블이다. 《타스 통신》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연방관구의 주체들과 러시아연방 문화부, 러시아 관광청간의 개발프로젝트 «러시아 동방 고리»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관광노선의 증진과 극동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예상하고 있다. 《Khabkrai.ru》

동방경제포럼에서 알로사(ALOSA) 재정위원회는 투자기획안 «광석을 함유한 섬의 다이아몬드 채굴사업»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와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투자규모는 630억 루블이다. 《News.Ykt.ru》

중국자동차제조사 중국제일기차(FAW)는 연해주에 건설될 화물차 조립공장에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협정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될 것이다. 《타스 통신》

극동 지역 소식

극동의 모든 민간투자기획안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프로그램 «2025년까지의 극동과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참가자로서의 공식적인 지위가

주어진다. 선발방법과 투자기획안의 지원에서 기획안 제출의 수정에 관한 규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의해 서명된다. 《프라임》

블라디보스톡 출장중에 유리 트루트네프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운송교통부는 블라디보스톡과 국제교통로 «브리모리에-1»의 부분이 된 항구 «보스토치니»를 잇는 자동차도에 관한 건설수단을 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테르팩스》

유리 트루트네프는 캄차카 반도에 있는 14개 단체가 자유항의 레지던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민간투자규모가 98억 루블이 될 것이며 1000개의 일자리가 조성될 것이다. 《타스 통신》

알렉산드르 갈루쉬카는 1월 1일부터 극동의 산업생산은 5.4%로 성장했고 산업거래의 이익은 세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뉴스-인포》

하바롭스크 주의 주지사 바치스라브 쉬포르트는 바니노 자유항의 레지던트들은 지역적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에 약 700억 루블의 민간투자를 한 레지던트 후보 15명을 임명했다. 《리그마 인포》

아무르 주의 주지사 알렉산드르 코즈로프는 2016년 가을에 아무르를 통해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도시인 하이허를 잇는 활발한 교량건설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